지역 소식통

고창군, 지방세정 종합 실적 평가 '대상' 선정

고창군이 2024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도내 군부중 최고점을 얻어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시·군별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다.

고창군은 2023년도 지방세 증감율과 징수율,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운영,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 제출, 모바일 전자납부제도, 주민편의 납부제도운영 등 13개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고창군민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방세 담당 직원들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정읍시는 응급의료의 효율적 지원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도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증빙서류를 갖춰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의약관리팀(063-539-6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도시·농촌 빈집 정비

농촌 빈집 5곳 리모델링해 취약계층 임대주택 활용
도심 빈집 2곳 공영주차장 조성, 빈집 10곳 직권 철거

정읍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빈집을 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정읍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빈집을 정비한다.

시는 총 3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거용 빈집 97동과 비주거용 빈집 22동에 대한 철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빈집 5개소를 리모델링 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빈집 2개소를 정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붕괴 위험 등 상태가 불량한 특정 빈집 10개소는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철거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자세한 신청서류와 지원 조건 등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마련해 소유주의 자진 철거 유도 외에도 다양한 빈집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빈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통합보훈회관 건립 설계 작품 선정

고창군, 건축사무소 예인건축 최종 당선작 군 홈페이지 공고

고창군이 통합보훈회관 건립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유)건축사무소 예인건축에서 제출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17개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군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4개 작품)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당선작은 보훈가족의 매개체가 되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원활한 접근과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한 공간 계획, 기능적 평면 계획 등에서 심사위원의 좋은 평을 받았다. 또 지역주민들과 건물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시했다.

고창군은 당선작을 토대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올 8월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고창군 통합보훈회관은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 고창읍 교촌리 233-5 부지에 연면적 약 850㎡(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보훈단체 사무실,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고창군은 민선 8기 심덕섭 군수 공약사업으로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해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를 통합 운영하면서 지역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의 예우와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통합보훈회관 건립으로 국가유공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보훈 정신이 선양되기를 바란다"며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보훈가족과 군민 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시See' 구독자 1만명 달성

누적 조회 수 144만회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e'가 구독자 1만명을 달성(3월 5일 기준)하며 시정 소통의 새로운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이학수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뉴미디어팀을 신설해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강화해왔다. 특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민 공감형 콘텐츠 제작에 주력해 유튜브를 비롯한 SNS 운영에 주력해왔다. '정읍See'에서는 발 빠르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숏폼 영상을 비롯해 현장감 있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구독자 1만명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시민 영상 공모전, 시민 리포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며 타 지자체 유튜브 채널과 차별화를 꾀했다.

그 결과 누적 조회 수 144만회, 누적 시청 시간 3만 8398시간을 달성하는 등 구독자 수 뿐만 아니라 시청 성적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정읍See'는 올해에도 시민 중심의 콘텐츠 제작과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흥미로운 영상을 제작해 정읍만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면서 지자체 유튜브 채널 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채널로 도약하겠다"면서 "숏츠(Shorts) 영상 공모전과 유명 크리에이터 콜라보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See'에서는 2024년 제1회 숏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현재 본선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지방재정 조기집행 총력

고창군이 장기적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집행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김철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3억원 이상 부서별 대규모 투자사업 및 기타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집행률 제고 방안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대규모 사업 관리 방안, 애로사항 청취 등 신속 집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군은 신속집행 대상액 5640억원 중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기초자치단체 목표율 54.3%보다 5.8% 높은 60.1%, 3387억원을 상반기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인건비·물건비 조기 집행 및 대규모 사업 공정관리 등 소비·투자 부문을 중점관리하여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철태 고창 부군수는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전북대,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오리엔테이션 개최

부안군이 전북대와 함께 미래농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해 개설한 2024학년도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가 5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들어갔다.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지난 2021년도부터 군과 전북대,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이다.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은 총 120학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과과정을 통해 에코농산업벤처산업기사, 사회적 치유농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수업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 이뤄져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졸업시에는 전북대 농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지난달 입학원서 접수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 및 등록한 15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사일정 소개, 학교생활 및 전산 안내, 재배학개론 전공수업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군과 전북대가 함께 개설한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를 통해 미래농산업을 이끌어갈 선진 농업인을 양성해 지역 농업 수준을 한층 더 진보시킬 인재가 다수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부안군보건소는 질병관리청 및 원광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 6명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부안군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 수준에 대한 대표성 있는 건강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조사로 지역보건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지원대상은 컴퓨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며 업무 경력자, 부안군 거주자 등은 우대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를 이용해 1대 1 면접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부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